

제 8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20년 7월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개념의 현실적인 의미는 <좋은 시민>이라는 말의 모호한 의미를 검토할 경우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중략- 『아테네의 정치체제 Constitution of Athens』에서 그는 좋은 시민이란 정치체제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정체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관심한 채 자신의 나라에 훌륭히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제시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시민이란 애국적인 시민이며, 그의 충성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에 있는 사람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며, 좋은 인간상이란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인랜드 또한 인간공동체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후에만 대답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덜 대중적인 저작인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시민 그 자체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좋은 시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히틀러 Hitler 통치 아래의 독일에서 좋은 시민은 다른 곳에서는 나쁜 시민일 것이다. 그러나 좋은 시민이 정치체제에 상대적인 반면 좋은 인간은 그와 같은 상대성을 갖고 있지 않다. 좋은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같다. 좋은 인간이 좋은 시민과 동일한 경우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최선의 정치체제의 경우이다.

공산사회, 자유사회에서 얘기하는 좋은 시민은 다 다르다.
하지만 잘 사는 것, 자신의 삶을 구하는 것은 어느 체제나 같다.

도덕성으로는 어떤지 알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마다 다른 도덕성에 대해 얘기하는 체제가 파시스트라 얘기할지 모른다. 선한 도덕성이면 좋지만 히틀러 나치도 자신들의 도덕성이 선하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지식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녀의 자식이 나쁠 때보다는 훌륭할 때 더 행복하다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좋은 것 또한 사랑한다.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그것이 반드시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사랑이자 동시에 좋은 것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자기 자신의 것과 좋은 것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긴장이 있으며, 그러한 긴장은 비록 그것이 오직 마음의 파멸에만 해당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파멸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신의 것과 좋은 것 사이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조국과 정치체제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자신의 것 : 좋은 것 = 좋은 시민 : 좋은 인간
(긴장) (긴장)

자신의 것과 좋은 것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그 긴장이 마음의 파멸로 이끈다.
사랑이 서로 마음이 일치하면 좋지만 기대 불일치에 따라 긴장이 늘 존재한다.

소유에 대한 사랑, 소유하기에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소유한다. 물론 소유에서 생기는 착취도 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가장장적인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소유 자체를 없애버리기를 원한다.

고전적 형이상학의 언어로는 조국이나 민족이 질료라면 정치체제는 형상이다. 고전들에 의하면 형상은 질료보다 존엄성이 높다. 이러한 견해를 <관념론 idealism>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세상의 원리, '기'는 이가 나타난 현상이다. 기에는 이가 항상 담겨있다.

'이'는 형상:idea·물자체·전체(universe), '기'는 질료·신체·부분(sub)이며 이와 기는 프랙탈 관계로 서로 핵심인 코어를 공유한다.

서양은 형상이 질료보다 높다고 확립되어 있으나 동양은 상대주의 때문에 형상과 질료를 같게 보다가 이항 때, 이가 기보다 존엄성이 높다는 것이 처음 논의된다. 이와 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기호발이란 이와 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 전파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환된다는 것은 아니다. 막스와 유물론은 질료가 형상보다 존엄하다고 생각해서 기를 변화시켜 이를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즉 기가 이보다 존엄하다고 봤다.

한국의 신화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즉 질료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서양 신화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새롭게 왕좌에 오른다. 제우스가 그랬다. 서양은 아버지라는 질료를 죽이는 신화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서양은 하나의 웅덩이에서 여러 갈래가 줄기로 뻗어나가는 반면 동양은 전체 줄기가 하나의 웅덩이로 모이는데 이는 모든 질료를 포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영웅을, 철인을 원한다.